

◆머느리권씨 열전 19-2

# 신수근의 부인 영가부부인 권씨 (소한당 권람의 6녀, 추밀공파 19세)

## 최고의 금수저에서 사형수로 일가족 몰살, 그리고 필요에 의해 정몽주급으로 부활(?)

### 정경부인 안동권씨 묘비문

정경부인 안동권씨는 거창신씨 시조인 공헌공(恭獻公) 휘(諱)수(修)의 16세손 휘 수근(守勤)의 초배(初配)이며 단경왕후의 전비(前妃)이다. 수근은 영의정 거창부원군인 장성공(章成公) 휘 승선(承善)의 장자로서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 춘추관 관상감사를 역임하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익창부원군의 증식을 받은 신도공(信度公)이다. 영가부부인의 증식을 받은 정경부인 안동권씨는 좌의정 익평공(翼公) 권람(權攀)의 여(女)요, 대제학 문경공(文景公) 제(?)의 손이며, 찬성 문충공(文忠公) 호 양촌(陽村) 근(近)의 증손이며, 좌의정 호 용헌(容軒) 고성 이원(李願)의 외손이다. 기(忌)는 3월 22일이며, 무유(無育)이다. 영조 대왕은 영조 15년(1739) 기미에 제11대 중종대왕의 원비인 신비(愼妃)를 단경왕후로 추복(追復)하고 고(考)인 수근에게 영의정 익창부원군의 증식과 신도라는 시호를 내리다. 또한 영조대왕은 건륭 4년 기미 5월 12일에 신 송상홍(宋尚欽)을 보내 증영가부부인 권씨의 영전에 치제를 거행하게 하다. 그 치제문에 “..... 연석중묘(念昔中廟)에 시의태유(時議太謬)이라. 국구기(國舅既)에 성비 손위(聖妃遜位)라. 관율구가(觀律舊家)에 태무자유(始無子遺)이라. 원철궁양(冤徹?嬪)하니 전사소희(前史所稀)라. 공의불민(公議不泯)하니 호내인순(胡乃因循)이 여흥유감(予忽有感)하야 선지극준(先直克遵)이라. 적의주복(翟儀追復)에 경명신인(慶?神人)이라.....” 쓰다. 그간 정경부인 안동권씨의 묘소는 수백년간 파주군 교하면 다율리 속칭 한벽리 능내 경좌이나 금반 장성공파 종친회의 결의에 따라 이곳 신도공 묘역 정경부인 서원한씨묘의 좌측 신좌에 묘사되다.

서기 2005년 을유 4월 5일

성공파 종친회장 용일(鎬日) 근술 성공파 종친 일동 근수



### 거창 신씨

시조 신수는 본래 복속 개봉부 사람이었으나 1068년 고려를 사신으로 방문했다가 문종의 권유로 고려에 귀화하고 황도 개경에서 정착하였다. 학식이 높고 의술에 정통했던 신수는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좌복야(左僕射),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거쳐 정1품 수사도(守司徒)에 이르러 사직하고 1101년(숙종 6년)에 사망하였다. 사후 국왕으로부터 공헌공(恭憲公)의 시호를 하사받았고 이후 거창 신씨는 모두 공헌공의 자손이라 이르게 되었다.

2세손 신안지(愼安之)는 고려의 병부상서(兵部尚書)를 지내며 대대로 개경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오던 거창 신씨는 고려의 문벌귀족으로 자리를 굳혔다. 고려는 동란기에 접어들게 되고 7세손 신집평(愼集平)은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으로 몽골군의 침략에 항전하다 순직하였다. 검교군기감사(檢校軍器監司)를 지내던 8세손 신성(愼成)은 득세한 친목파를 피해 개경에서 남하여 거창에 정착하였고 거창 신씨의 시원이 되었다. 그곳에서 거창 신씨는 15세까지 7대에 걸쳐 200여 년 이상 살



거창 위천면의 황산전통한옥마을. 거창 신씨 집성촌으로 낮은 담장이 골목을 이루며 70여채의 기와집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마을 앞 수승대에는 이 가문의 선비 신권이 후학을 길러던 구연서원이 있다.

았고 거창을 관향으로 삼았다.

거창 신씨는 시조부터 계속 독자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13세손 신이충(愼以衷)이 슬하에 참판공 기(幾), 서령공 언(言), 양간공 전(諱) 삼형제를 두게 되어 가문의 계보는 삼세파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 삼형제는 각자 거창 신씨의 백파(제1파), 종파(제2파), 계파(제3파)의 파조가 되어 가문의 중흥을 이뤘다.

거창 신씨는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도 명문가 중 하나로서 융성하여 조선시대에 왕비 2명, 상신(相臣) 2명, 공신(功臣) 2명을 배출하였고 문과에 35명, 무과에 9명, 사마시에 93명, 역과에 11명 총 148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신수근은 장성공파(章成公派)이다.

글 권오철 기자

##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수용 대중회 부회장(좌원공파 36세)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문제는 오늘날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방향에 대한 문제이다 그것은 첫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려는 인간을, 특히 젊은이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미래에 이상세계의 도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역사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의 문제란 역사의 변천 방향에 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미래세계의 성격의 문제다. 그동안 역사는 방향을 알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학자 나름대로 역사가 세워졌던 것이다

오늘날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세계문제는 이 역사관 문제의 해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특히 공산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관인 유물사관을 분쇄하여야 한다. 그들의 역사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공산주의를 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장한 월맹군과 역사관을 갖지 못한 미군과의 싸움에서 미군이 패한 것이다. 어떠한 물리적 힘도 사상을 제압하

지 못한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이념일 뿐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관이 없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우수한 역사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이 확고한 역사관의 수립을 등한시한다면, 일부 젊은 청년과 학생들을 공산주의에 빼앗기고 말 것이다. 통일 사관은 바로 이같이 확고한 사관으로서 기존 사관을 통일하면서 공산주의의 사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한 것이다. 종래의 사관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통일 사관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 1) 순환사관 (운명사관)

그리스시대의 사관으로서 헤로도투스(페루시아 전쟁사), 투키디데스(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등은 역사상 인물이나 왕조의 흥망성쇠를 운명적으로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6가지 정치형태가 다음과 같이 순환한다고 보았다. 즉 군주정치 다음에 귀족정치 과두정치 폭군정치 다음에 민주정치 다음에 우중정치 순으로 순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관은 오늘날에는 합당할 수가 없다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 2) 설리사관

헤브라이즘의 사관을 본따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

리한다고 보는 사관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 사관에는 역사의 시원과 종말이 있으며 두 시점은 직선적인 시간에 의하여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관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재림에 대한 심판과 종말에 있어서 천사와 악마의 싸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이 사관은 역사의 방향성과 목적성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재림에 대한 심판과 종말에 있어서의 천사와 악마와의 싸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역사의 방향성과 목적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 방식, 내용 등과 재림 후의 구체적인 세계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리성, 실증성을 결하고 있어서 오늘날에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 3) 진보사관(정신사관)

주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사관으로서 역사는 부단히 발전하는 바, 그 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의 정신이며 정신이 지식과 기술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되었다고 본다.

정신은 합리성을 따랐기 때문에 미래세계는 결국 합리적인 이상세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속하는 사가는 비코, 볼테르, 콘도르세, 칸트, 헤겔 등이다. 이 사관은 미래에 대한 일종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단, 헤겔은 법칙을 제시하였으나 하나님을 잘못 규정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의 사관도 현실과 맞지 않게 됨) (다음호에 계속)

##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안(1)

최근에 우리 모두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 2, 3, 4의 법칙을 말하고 있다. 10년 동안 성장하고, 20년 동안 배우고, 30년 동안 돈을 벌은 후에 퇴직 후 40년을 살면 100세가 된다. 그래서 1·2·3·4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퇴직 후 40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장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배우는데도 20년 이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돈 벌어야 하는 30년은 점차 20년 가까이 줄어들고 있으며, 벌여놓은 돈으로 살아야 할 40년은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모두 정년이 있으며, 정년 이후의 약 40년의 기간을 노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노후(은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후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①건강 ②돈(경제) ③할일(직업) ④친구 ⑤기타 (애완동물, 취미생활 등) 등을 말한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본인은 돈(경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해도 휘발유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천재나 미인이라도 몸에 피가 부족하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노후에는 돈이 휘발유나 피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본인은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만 한다.

현시점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죽는다. 빈손으로 가야 한다, 혼자 간다, 자식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의 4가지이며, 내가 모르는 것은 “언제 죽을지, 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의 4가지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퇴(정년) 이후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나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현직에 있을 수 있는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자영업사업자이건 간에 자신의 은퇴시기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② 퇴직 후 (30~40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퇴직 후에 해야 할 일은 현직에 있을 때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본인에 적합한 자격증 취득 등)

③ 나는 얼마나 건강하며,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가?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남은 날수를 계산해야 한다.

④ 배우자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내가 죽

은 뒤 혼자서 살 능력이 있는가?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도 확인해야 하며, 남자의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에 남편과의 사별 이후 배우자의 혼자 살 능력도 체크되어야 한다.

⑤ 우리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은 얼마이며, 현재 보유자금은 얼마인지?

부부가 앞으로 살아갈 평균 연령과 필요자금을 계산하고, 현재 얼마나 보유자금이 있고 또 장차 들어올 수입금액을 감안하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빛은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⑥ 우리 부부는 서로 얼마나 사랑하며, 불만은 얼마나 있는가? 황혼이혼의 가능성은 없는가?

남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아내의 불만이 많은 경우 황혼이혼이나 졸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을 각오해야 한다.

⑦ 자녀들은 몇 년 후 독립할 수 있으며, 독립 후 혼자서 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형제관란의 시점에서 자녀들이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혼 후에는 혼자 살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부모도 자녀의 뒷바라지에서 해방되고, 졸업하여야만 한다.

⑧ 자녀들과 우리 부부는 얼마나 사이가 좋은가?

부모와 자녀간의 사이가 나빠진 경우에는 은퇴 이후의 제반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혼자 남은 경우 요양시설에의 입주 등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자녀들과의 문제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특히 며느리와 사위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만 한다.

자녀들에 대한 투자가 보장성 보험에서 소멸성 보험으로 바뀐 현실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송보도에는 자녀 5명 중 1명만이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위의 8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부간에 충분히 협의의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여야 한다.

내가 보충할(부족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 매월당 금오신화제



단종 사후 이후 경주(慶州) 남산(南山) 용장사(茸長寺)에 초당(草堂)을 짓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탄생시킨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조선 초기의 문인 학자, 승려)의 추모 행사를 “토박이 마을, 땅이름과 나무”의 저자이자 수필문학인(隨筆文學人)이신 권순채(權純采, 좌원공파 37세) 후손이 사비를 출연, 12년째 추모문화제를 봉행해서 화제다.

2월 15일 오후 2시 경주 남산 국립공원(國立公園) 용장사(茸長寺)에서 전국에서 참석된 문학인들이 추모제를 지내고 금오신화(金鰲新話)에 나오는 한문시와 매월당 추모 자작시 낭송 모임을 가졌다. 이날 30여 명의 시인(詩人) 소설가(小說家) 한학자(漢學者)들이 참석했다.

초현관엔 박천익(행복문화회장)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아현관에는 정수암 서예가, 종현관엔 최영기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장이, 축관엔 한학자 김영근 선생이 맡았다.

이 행사를 12년째 사비를 들여 주관하는 권순채 후손은 “조선(朝鮮)의 위대한 문화들이 신라(新羅) 문화에 묻혀 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나라 최초 한문소설 금오신화의 주 무대인 용장사에서 매월당을 기리는 추모문화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설잡(雪岑)의 본관은 강릉, 충순위를 지낸 김일성(金日省)의 아들이다.

생후 8개월에 글 뜻을 알고 3살부터 글을 지었으며 세종대왕이 시제(詩題)를 내자 바로 글을 지은 천재성이 화제가 됐던 김시습(金時習)은 수양대군에 의해 지행된 단종 사후 이후 은둔생활을 하다 승려가 됐다. 경주 서남산 용장사에서 승려로 지내면서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지었으며 차문화(茶文化)를 일으켜 기림사(祇林寺) 등 곳곳에 설잡의 흔적을 남겼다. 일설엔 사육신(死六臣)의 시신을 지금의 서울시 노랑진 사육신 공원에 암장했었다고 전해진다. 1493년 충정도 홍산군 무량사에서 열반에 드셨다.

권오신 좌원공파 회장

